

# 16세기 전반

## 프랑스 위그노의 종교개혁과 그 사상

신기호

(기독교학문연구소 / 신학)

### 논문 초록

이 논문은 종교개혁가 장 칼뱅을 배출한 16세기 전반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고찰한다. 이 시대 프랑스 개신교도를 통칭한 위그노의 종교개혁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소위 북음주의화 단계로서 기독교 인문주의자 르페브르와 루터의 개혁 사상이 보급, 확산되면서, 점진적이고 온건한 개혁이 실험되었다. 그러나 벽보사건을 기화로 왕권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결국 북음주의적 개혁 실험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후, 보다 철저한 개혁운동으로 전환된다. 두 번째는 소위 칼빈주의화 단계로서, 로마카톨릭과 철저히 구별되는 단절의 신학이 추구되었다. 가혹한 외부의 탄압은 독특한 내적, 외적 구조와 헌법대전을 가진 프랑스 개혁교회의 성립을 가져왔고, 이에 힘입어서 위그노의 개혁운동은 매우 신속하게 프랑스 전역으로 확장되었다.

핵심 주제어: 위그노, 칼뱅, 개혁교회, 르페브르

- I. 서론
- II. 위그노 종교개혁의 시작: 복음주의화 단계
- III. 위그노 종교개혁의 전환: 칼빈주의화 단계
- IV. 결론

## I. 서론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사를 다룰 때, 독일과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선두적 위치에 놓고 기술하고, 그 다음에는 영국교회의 개혁으로 넘어간다. 프랑스를 다룬다 할지라도 대부분 주마간산(走馬看山)식의 피상적 묘사에 그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물론 현재 프랑스에서 개신교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종교 파이고, 과거를 보더라도 17세기 말 이후에는 세계 교회사에서 기여한 바가 별로 없을 만큼 미미했기 때문에, 교회사를 기술할 때 프랑스의 종교개혁사를 변방에 배치하는 것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더욱이 1685년 루이 14세가 “최선의 일은 이 거짓 종교의 진보가 이 나라에 초래한 고통과 혼란과 악의 기억을 삭제하고, 소위 낭트 칙령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Richard, 1994: 124)라고 하면서 낭트 칙령<sup>1)</sup>의 폐지를 선언한 이후, 유럽은 고사하고 프랑스의 역사에서조차 개신교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비록 현재 본국에서 그것을 증언해 줄 후손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약화돼 있다 해도, 최소한 16세기의 프랑스 개신교도들의 역사는 무시해도 좋을 만한 것이 결코 아니다. 위그노의 종교개혁사는 연구할 가치가 있는 역사이다. 그것은 그들의 역사가 당시 전(全)유럽 역사의 판도를 뒤바꾸어 놓을 만큼 비중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역사의 한 모퉁이에서 칼

1) l'édit de Nantes. 1598년 프랑스 국왕 앙리 4세가 서명한 이 칙령으로 인해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은 예배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획득했다.

뱅(Jean Calvin)이라는 개신교사에서 길이 빛날 탁월한 인물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역사에서 “개신교란 무엇이고 그것이 정말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생생하고 확신에 찬 답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위그노의 종교개혁운동은 16세기 초에 시작되어 16세기 중엽 그 절정에 도달했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격변과 맞물리면서 부침을 거듭하지만, 운동의 대체적인 방향과 윤곽은 이 시기에 확정되었다. 이 기간의 프랑스 개혁운동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계는 이른바 복음주의화 단계로서 1520년에서 1540년까지이다. 이 시기에 프랑스의 종교개혁 운동에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왕자”(Berthoud, 1988: 36)로 평가된 르페브르와 루터이며, 그 외에도 부싸와 파렐을 언급할 수 있다. 이 때 복음주의적인 종교개혁운동이 시작되었고, 모(Meaux)에서는 이 새로운 사상에 대한 실험이 단행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칼빈주의화의 단계로서 1540년에서 1560년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인문주의적 복음주의자들이 주도했던 점진적 개혁 방향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른바 단절의 신학(théologie de rupture)을 모토로 하는 새로운 개혁운동이 시도되었다. 1559년 파리의 전국총회에서 신앙고백서와 권징규칙서가 채택되는데,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는 전혀 다른 프랑스 개혁교회의 독특한 구조가 완성된 것을 의미하였다.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로마 카톨릭 식의 이분법적 교회구조를 거부하고(Mehl, 1982: 14)<sup>2)</sup>, 성경에 근거한 새로운 교회의 내적 구조를 정립한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위그노의 어원과 당시 프랑스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개괄한 후, 위와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 위그노의 종교개혁운동을 고찰할 것

2) 성직자 계층에 대한 불신감과 저항 의식은 오늘날도 프랑스 개신교의 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다.

## 1. 위그노의 어원과 그 의미

16세기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통칭했던 위그노(*huguenot*) 라는 말의 어원에 대한 정설은 없다. 뒤비에프와 뿌졸에 의하면, 이 단어는 처음 나올 때부터 그 어원이 불분명했다(*Dubiet et Pajol, 1996: 38*).

여러 개의 어원이 제시되어 왔으나, 그 중에 어원으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것은 *Eidgenossen*이다. 이것은 독일어로 연합한 자(*confédérés*) 혹은, 동맹한 자(*ligueurs*)를 뜻한다(*Dubiet et Pajol, 1996: 38*).

두 번째로 *hugon*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밤에 출몰한다는 프랑스 투르(*Tours*)의 민간전승에 나오는 왕이다. 저비(*Gray, 1981: 52-53*)<sup>3)</sup>는 개신교인이 자주 밤에 집회를 가지기 때문에 “몽유병자”를 뜻하는 의미로 붙여졌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셋째로 프랑스의 옛 왕인 *Hugh Capet*인데, 부르봉가의 왕자인 루이 드 콩데에 의하면, 이 말은 기즈가 사람들이 경쟁자인 부르봉가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 부르는 별명이다. 기즈 가문의 조상은 816년에 왕위에 오른 샤를 마뉴이고, 부르봉가의 조상은 988년에 왕이 된 위그 카페(*Hugh Capet*)이기 때문에,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자기들 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부르봉가 사람들을 위그 카페의 후손이라는 뜻으로 위그노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넷째로 *huguenot*가 어원인데, 까스펠노에 의하면 이것은 중세에 사용된 아주 작은 가치의 화폐 단위였다. 1560년 앙브와즈의 음모가 실패하고 개신교도들이 잡혔을 때, 그들을 보고 위그노만큼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

3) Julien Jervay가 the Huguenot Society of Charleston에 보내는 글(1889년).

비아냥거리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위그노에 대한 어원은 통일되지 않고 있으며, 어원으로 제시되는 말들의 의미가 상이하다. 그런데 그레이는 여기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시도한다. 그에 논리를 따라보면, 위에서 어원으로 제시된 단어들이 모두, 위그노라는 단어와 실제로 어원적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그노라고 불린 프랑스 개신교인들은 위의 단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레이는 그 어원들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로 Hugh Capet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보면 1562년 종교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개신교인들은 발루와 왕조를 지지했고, 그 경쟁자인 기즈 가문의 손을 들어준 적이 없다. 그래서 더욱 기즈 가문은 개신교인들을 미워했을 것이다. 그들이 위그 카페를 조상으로 둔 발루와 왕조와 가깝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을 Hugh Capet이라 부르며 적대감과 멸시를 표현했을 것이고, 그 외에 경멸적 의미가 포함된 다른 어원들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됐을 것이다.

## 2. 16세기 초 프랑스의 사회 문화적 배경

16세기가 시작될 무렵 프랑스는 이미 절대왕권의 면모를 갖춘 강력한 국가였다. 발루와(Valois)왕조는 북부 이탈리아의 지배권을 놓고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와 다투고 있었다(McNeil, 1990: 271). 프랑스와 1세는 이탈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교황 레오 10세와 볼로냐 조약(1516)을 체결하면서, 프랑스 교회를 자기 왕권에 복속시켰다.

16세기 초엽의 유럽 사회상과 종교개혁의 관계를 연구한 베르투의 관점(Berthoud, 1990: 16-35)이 흥미로운데,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기의 서구 상황은 절대주의화와 탈신앙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이 시기에 로마 교황이나 프랑스 국왕을 포함한 세속 권력자들 모두 절대 권력을 위해

치달렸다. 그레고리 7세(1020-1085)부터 대부분의 교황들이 영적 권세뿐 아니라 세속 권세의 확장을 위해 치달려온 인물들이고, 신성로마제국과 영국, 프랑스의 왕들도 하나님의 뜻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초법적인 절대권력을 향유하고자 했던 자들이었다.

이 시기의 문화는 르네상스(Renaissance) 정신에 지배된 문화라 할 수 있는데, 베르뚜는 이 르네상스 정신이야말로, 미(美)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적절한 형식적 표현으로 간주했던 고귀한 중세적 가치를 부정하고, 윤리와 진리에서 해방된 자율적인 미 자체를 절대적인 것으로서 숭배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었다.

이와 같이 정치와 문화의 영역에서 공통되게 발견되는 절대주의와 탈신앙의 특징을 구현한 인물들이 이 시대에는 속속 나타난다. 절대권력의 왕과 교황, 그들에게 아첨하는 귀족들, 부패한 권력지향적 성직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술을 윤리와 도덕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자화자찬식의 예술 엘리트들, 권력 유지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적 정치가, 신앙의 규칙을 초월하여 이윤추구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을 떠난 르네상스 문화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국제적 은행가 등이 바로 그들이다.

베르뚜는 위의 인간형들을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 예로 메디치(Medici)가문(Berthoud, 1999: 27-28)을 들었다. 피렌체의 유력한 은행가 가문인 메디치 가문에서, 후에 종교개혁가 루터를 파문시킨 레오 10세(1475-1521)가 나왔고, 앙리 2세의 부인이며 후에 섭정 여왕이 되는 까뜨린 드 메디치(1519-1589)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절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무시하는 것은 예사였고, 거꾸로 신앙을 자기 권력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

시대의 정신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유일한 진리의 기준으로 믿고 따르는 개혁가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던 것이다.

## II. 위그노 종교개혁의 시작: 복음주의화 단계 (1520-1540)

종교개혁은 오래 전부터 반복되던 테마였으나, 중세시대의 몰락과 신세계의 발견에 의해 촉발된 경제적, 사회적, 지적 격변은 16세기 초엽 개혁의 필요성을 심화시켰다. 이전(以前)세기들에 비해 평가 절하된 사제계급에 대항하여,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고, 무엇보다 위로부터의 개혁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교회제도의 부동성(不動性)을 과소평가한 것이었다(*Dubief et Pouid, 1996 21*). 로마교회는 스스로 갱신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따라서 16세기 초엽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급작스런 사건으로서 로마카톨릭 교회 밖에서 발생해야 했다. 이것은 로마교회와 관련이 없는 어떤 새로운 것의 탄생을 의미하였다. 세속권력의 옹호 속에서 비판적 신학자들에 의해 주도된 종교개혁은 새로운 신앙고백을 탄생시키며 기독교 세계를 항구적으로 분열시켰다. 결정적 분열은 어거스틴과 수사이며 비텐베르크 신학교수였던 마르틴 루터에 의해 1517년부터 1521년 사이에 달성됐다. 루터는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과 교회제도에 대한 양심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만 복종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루터의 메시지가 신성로마제국뿐 아니라 그 너머에까지 즉각적이고 심대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을 때, 프랑스에서는 르페브르의 온건한 개혁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태동하던 프랑스 복

음주의 운동에는 서로 동질적이며 이질적이기도 한, 두 가지 동인(動因)이 발견된다. 하나는 기존 교회의 구조를 존중하며 교회 안으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하는 인문주의자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독일과 스위스에서 일어난 교회 밖으로부터의 종교개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루터주의자들이었다 (*Dubief et Poujol, 1996: 22*).

### 1. 르페브르와 프랑스 복음주의 운동의 시작

체제 내에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했던 프랑스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은 탁월한 기독교인문주의자였던 르페브르를 중심으로 결집하였다. 르페브르는 비단 프랑스 종교개혁의 사상적 모태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 개신교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모(Meaux)에서의 개혁운동을 실제적으로 이끌었다.

#### (1) 르페브르 (Jacques Lefèvre d'Étaples, 1455-1536)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와 함께 이 시기에 프랑스의 지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기독교 인문주의자는 자끄 르페브르 데따뵈이였다. 평생을 진리탐구에 바친 그의 지적 역정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단계는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전을 라틴어로 번역, 출판하던 시기다. 그는 중세 말엽의 스콜라적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유명론적 전통과 단절하고, 인문주의자로서 원전으로 돌아가서 고대철학 원전의 역사적 비평<sup>4)</sup>에 몰두한다. 둘째 영적 의미가 없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실망한 후 고대 자연 신화의 해석 작업을 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도 그의 지적 탐구열은 대단해서, 고대 신

4) 그의 역사적 비평은 문헌학적, 문법적 비평(*la critique philologique et grammaticale*)으로서, 계몽주의 시대의 합리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였던 역사비평방법(*méthode historico-critique*)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화 해석학에 권위 있는 저술들을 남겼다. 마지막 단계에서 비로소 그는 참된 지식과 지혜의 원천인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 연구에 헌신한다. 치츨 성경연구에 몰입하면서 그는 종교개혁의 주요한 교리들을, 마르틴 루터보다도 수 십 년 먼저 발견하였고, 1509년 그의 첫 성경주석서라 할 수 있는 “오중시편집”(Le Quintuple Psautier)을 출판했다.

르페브르와 루터는 사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루터의 글이 프랑스에 유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르페브르는 루터의 개혁사상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반대로 르페브르의 사상과 해석학적 업적은 마르틴 루터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1885년 드레스데(Dresde) 소재(所在) 루터의 서재에서, 초판 “오중시편집”이 발견되었는데, 그 책의 여백은 루터가 손수 쓴 주석으로 가득했다. 이것은 그가 르페브르의 신학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루터가 르페브르로부터 영향을 받은 증거는 적지 않다. 후에 루터가 성경주석서를 쓸 때에 가장 먼저 집필한 것은 르페브르처럼 시편이었고, 성경 본문을 주석할 때도 르페브르의 이론을 따라서 본문의 이중적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르페브르는 당시 일반적이었던 해석자의 주관에 좌우되는 알레고리적 해석방법을 배격하였다. 그는 성경해석에서 사중 의미가 아니라, 자연적 의미와 탈역사적-문자적 의미만을 인정하였고, 특히 성경본문의 문자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2) 르페브르의 개혁사상의 확산

이러한 르페브르 사상을 추종했던 소수의 인문주의적 복음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초대교회의 복음적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성경원문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로마카톨릭교회의 전통적 주석

(gloses de la Tradition)의 배척과 불가타역<sup>5)</sup>의 권위의 약화를 불러왔다. 이러한 성경으로의 귀환은 그 동안 자행 돼왔던 성경 해석의 오용과 남용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의 교리와 교회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였다. 또한 이들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은 성경을 세속 언어로 번역하여 민중들에게 보급하는데도 앞장섰다.

이들의 사상은 점차 광범위한 계층으로 확산되어 갔다. 르페브르의 고귀한 사상은 특히 명망가들 사이에 유행하게 되었고, 고위 성직자 계급과 프랑스 국왕의 궁정에까지 침투하게 되었다. 프랑스 국왕의 누이이고, 알랑쥬(Alençon) 공작부인이며 후에 나바르(Navarre) 여왕이 된 앙굴렘의 마르그리뜨(Marguerite d'Angoulême, 1492-1549)는 이 새로운 사상의 강력한 후원자를 자처했다. 그녀의 궁정시인인 끌레망 마로(Clément Marot, 1496-1544)가 “여자의 몸과 남자의 심장, 그리고 천사의 얼굴”(Dubief et Poujol, 1996: 29)을 가졌다고 찬사를 보내는데, 그 찬사에 걸맞게 마르그리뜨는 사방에서 적들이 개신교도들에 대한 멸절을 외쳐댈 때도, 담대하게도 르페브르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보호를 끝까지 철회하지 않았다. 바로 그녀의 든든한 후원에 힘입어서, 파리 신학 대학인 소르본느(La Sorbonne)가 루터의 개혁안을 이단이라고 정죄한 바로 그 해에, 르페브르와 그의 제자들은 모(Meaux)에서 종교개혁실험을 시도할 수 있었다.

### (3) 모(Meaux)의 종교개혁실험 (1521-1527)

모에서 이루어진 종교개혁운동의 심장부에는 브리쏘네 주교(L'Evêque Guillaume Briçonnet, 1470-1534) 라는 실무적 인물과 그의 보좌 신부이기도 했던 르페브르라는 걸출한 신학자가 있었다. 이 개혁운동의 공식적인 책임자였던 브리쏘네는, 앙굴렘의 마르그리뜨와 궁정의 개혁주의자들의 지지

5)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

에 힘입어 사제 훈련과 신자 교육의 혁신을 시도했다.

그는 먼저 르페브르가 주도하는 신학자 그룹에게 서신서들과 복음서의 설교를 혁신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신약성경의 불어 번역을 르페브르에게 의뢰했다. 그 결과 불어신약 성경은 1523년 초판이, 그 이듬해 재판이 발간되었다. 이러한 신학적 작업과 병행하여 로마카톨릭의 비합리적이거나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미사 의식에서 불어 사용을 도입되었고, 소위 성상(聖像)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그림 외에 일체가 거부되었다. 또한 지역 사제들의 자질 향상과 소외감 완화를 위해, 사제들에게 많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이와 같은 개혁작업이 조직적으로 진행되면서 모(Meaux)는 일종의 종교적 실험 무대가 되었고, 그 실험은 최소한 처음 한 동안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신지들과 사제들은 브리쏘네 주교와 르페브르의 프로그램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자기 누이와의 관계가 돈독했고 교회의 내부적 개혁의 필요성에도 어느 정도 공감했던 국왕 프랑스와 1세도, 이러한 복음적인 개혁 작업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영적 권위를 유지해온 소르본느(파리신학대학)와 파리 최고법원을 포함한 보수성향의 반대자들은 개혁에 대하여 처음부터 적대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다가 1525년 빠비(Pavie) 전투의 패배로 국왕이 포로가 된 사건을 기회로, 반대세력들은 조직적인 반격을 개시하였다. 국왕이 궐석한 재판에서 파리의 최고법원은 브리쏘네와 개혁세력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였고, 브리쏘네 주교는 이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1527년, 모의 종교개혁의 절대적 후원자였던 마르그리뜨가 나바르의 여왕이 되기 위해 네락(Nérac)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개혁 그룹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르페브르는 생명을 보호 받기 위

해 나바르 여왕이 있는 네락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의 말년을 맞는다.

그러나 모의 개혁실험은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진 것이 아니었다. 첫째로, 르페브르의 신봉자였던 제라르 루셀(*Gérard Roussel, ?-1550*)이 종교개혁의 흐름을 이어나갔다. 나바르 여왕인 마르그리뜨의 보호 아래, 루셀은 베른과 가스꼬뉴에서 모의 실험을 재현하였다(*Dubief et Pajol, 1996: 23*). 둘째, 르페브르의 또 다른 제자였던 기욤 파렐(*1489-1565*)은 모에서 실패로 끝난 종교개혁운동을 스위스에서 다시 시작하였다. 파렐은 처음에는 성자에 대한 존경과 르페브르에 대한 존경 사이에 갈등하였다고 말하면서 “오직 그를 내 세워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셨다”(Hughes, 1984: 96)고 하면서 르페브르와 그의 종교개혁사상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그는 르페브르가 추구한 온건한 “절반의 정책들”(Berthoud, 1999: 39)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모의 개혁실험이 실패로 기울어 가는 것을 목도하면서 파렐은 그의 조국의 열악한 정치적 상황에서 단호하지 못한 프랑스 복음주의 운동으로는 결코 진정한 개혁을 성취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는 위대한 열망을 품고 1526년, 그의 조국을 떠나 스위스 연방의 불어권 지역에서 종교개혁의 이상을 실현하는 일을 시작했다.

## 2. 루터파 복음주의의 보급

초기의 프랑스 개신교도들은 그들의 대적자들에 의해, “루터파 복음주의”라는 딱지를 받았다. 비록 그들의 사상적 지평은 분명히, 비텐베르크(*Wittenberg*)의 수사가 로마교회 밖에서 그 기초를 세운 종교개혁의 지평이었지만, 그들의 사상적 기원이 반드시 루터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 (1) 루터 사상의 보급

라틴어로 쓰여진 루터의 저술들은 1519년, 프로벤이라는 독일 출판업자가 600부의 “비텐베르크의 95개조 항의문”을 프랑스에 들여온 이후, 급속도로 보급되었다. 당대의 석학인 르페브르도 1520년에 루터의 저술들을 읽었다. 그 파급 효과에 놀란 소르본느로부터 1521년 이단으로 정죄 받은 루터의 책들은, 1523년 이후 불어로 번역되기 시작하였다. 그것들은 단순히 번역될 뿐 아니라, 상당 부분 개작이나 가필, 표절 등을 거쳐서 10여 년 동안 알랑송(Alençon), 리옹(Lyon), 특히 프랑스 접경 지역인 발(Bâle), 암베르(Amvers),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등지에서 끊임없이 출판되었다. 루터의 책들이 이미 출판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학적 주장들은 팜플렛이나 기도 책자와 같은 형태로 프랑스 전역에 보급되었다.

루터의 신학은 칭의의 신학이요 동시에 말씀의 신학이다(오티코 1998: 69). 그의 신학은 첫째 오직 믿음을 통한 칭의, 둘째,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 셋째, 신자들을 위한 유일한 권위의 담지자로서의 성경, 넷째, 모든 신자들의 일반적 사제적 등의 중요한 신학적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동시에 이것들의 부정적 파생명제로서 인간의 공로를 통한 구원의 부정, 성경보다 우월한 교회의 권위에 대한 거부,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위계적 체계에 대한 부정 등이 루터가 로마카톨릭교회의 부패성을 공격할 때 사용된 주된 논지이기도 하였다.

당시 프랑스 사회에 루터의 사상이 끼친 영향은 대단하였다. 비록 다수의 프랑스인들이 루터의 저술들을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어도, 루터가 확산시킨 종교개혁의 이념들은 대중화 되었다. 설교가들은 그것이 루터의 사상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초대교회와 당시의 교회 사이의 괴리에 대한 설교를 하였고,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원문으로 된 바울서신을 가르쳤다.

루터의 신학이 얼마나 대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는지를 설명하면서 가

리쑹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축구나 럭비 경기와 같은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갑론을박하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신학적 토론을 하였다.”(*Garrison, 1988: 154*)고 설명하였다. 로마카톨릭교회가 성경과 신학적 담론을 사제들의 독점물로 만들고, 평신도를 철저히 소외시킨 것이 비하면 이것은 놀라운 변화이다.

## (2) 다른 종교개혁가들의 사상적 영향

루터와 복음주의로 낙인찍힌 이 새로운 사상을 모두 루터에게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 비록 그들 모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루터와 사상적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루터와는 구별되는, 다른 종교개혁가들이 이른바 프랑스의 “루터파 복음주의”에 끼친 영향력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들 중 특히 “도시적 종교개혁”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는 스트라스부르와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일군 부쑤와 파렐의 사상과 업적은 위그노의 개혁 운동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틴 부쑤는 독일 알자스 근교 태생으로 일찍이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를 익혔다. 도미니칸 수사가 된 그는 루터의 로마카톨릭에 대한 비판을 듣고 나서 개신교로 개종하였다. 루터의 종교개혁사상을 설교한 것 때문에 출교 처분을 받고 나서, 독일을 떠나 당시 매튜 켈에 의해 개혁 운동이 한창이었던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하였다(*오덕교 1998: 190-91*). 그곳에서 요한 스트롭과 함께 교육을 통한 개혁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마틴 부쑤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프랑스 복음주의자들에게 끼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의 개혁운동은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칼뱅과 프랑스 복음주의자들도 부쑤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교육을 중요시 하였다. 둘째 그는 개혁주의적 성찬관을 확립하였다. 성찬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은 나중에 칼뱅이 그랬던 것처럼, 루터보다는 훨씬 쪼빙글리

(Zwingli)에 가까운 것이었다. 셋째 그는 처음으로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채택하였다. 동시에 그는 권징을 기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심정으로 포용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권징을 행사하였다. 권징은 교인 상호간의 신앙과 윤리적인 삶을 격려하고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필요한 것이지만, 중세 로마카톨릭교회의 종교재판처럼 무자비하고, 냉혹한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서는 교회의 3대 표징의 하나로 권징을 중시함과 동시에 “잃어버린 자, 흩어져 있는 자, 상처 받은 자, 유약한 자”(오덕교 1998: 191)들을 돌보는 목회자의 마음을 강조하였다.

기욤 파렐은 프랑스 도피네 지방 출신으로 인문주의자 르페브르의 영향을 받아 모(Meaux)에서 단행된 종교개혁운동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인문주의 복음주의자들의 점진적이고, 타협적인 개혁방향에 불만스러웠던 파렐은 프랑스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도, 강렬한 복음적 설교를 지속하는 한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우상숭배에 대한 직설적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조국의 열악한 정치상황<sup>6)</sup>과 복음주의 개혁가들의 로마교회에 대한 타협적 자세에 회의를 느낀 그는, 1526년부터 방향을 돌려 스위스 연방의 불어권 지역에 복음주의 신앙의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한다. 그가 프랑스에 인접한 이 지역으로 발길을 돌린 이면에는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영적으로 신뢰할만한 지리적인 베이스 캠프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프랑스 왕국의 종교개혁이 장기적으로 열매를 맺고 효과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있었다.

이를 위하여 그는 감탄할 만큼 탁월하고 열정적인 선교사로 활동함과 동시에 강력하고 의욕적인 베른(Berne) 공화국의 정치가로 나선다. 당시 베른은 1526년에 이미 종교개혁을 단행하였고, 1528년엔 개신교를 국교로 선언

6) 당시 프랑스 국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는 벽보 사건 이후 개신교도에 대한 탄압 일변도로 나아갔고, 왕위를 계승한 그의 아들 앙리 2세는 처음부터 엄청난 적대감을 갖고서 훨씬 더 잔인한 탄압으로 일관했다.

하였다. 파렐은 베른이 정치적, 영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스위스의 모든 불어권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전념하였다.

베른이 부르고뉴 전쟁에서 승리한 후 관할하게 된 오르브(Orbe)에 파렐은 복음을 전파한 후 삐에르 비레(Pierre Viret)를 목회자로 불렀다. 또한 파렐은, 비레와 프로망(Froment)과 함께, 제네바의 종교개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처럼 그는 어디든지 불어권 개혁교회의 기초를 세웠다. 그가 갈고 닭은 텃밭 위에 오래지 않아 최초의 불어권 개혁교회들이 설립되었다. 칼뱅을 제네바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른 것도 파렐이었다. 그는 뇌샤텔(Neuchâtel)에 최초의 인쇄소를 세우고, 스위스 보(Vaud) 주(州)사람들로부터 최초의 불어 성경<sup>7)</sup> 출판 비용을 구하기 위해 알프스 산맥을 넘는 험난한 여행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파렐은, 베른 정부의 보호 속에 프랑스 인접 지역지인 스위스 불어권 지역에, 특히 말씀 사역과 출판사역을 통하여, 복음전파의 기치를 건설하였다. 이 지역은 프랑스 접경 지역 중 유일하게 로마카톨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프랑스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Berthoud, 1999: 39-41).

### 3. 프랑스 복음주의 운동의 위기: 왕권의 가혹한 탄압과 종교개혁 세력의 약화

모의 온전한 개혁실험의 실패는 보다 급진적인 루터주의적 개혁 사상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다.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우상숭배적 종교행위를 반대하는 노골적인 비판과 행동들이 점점 더 심각해졌다. 성수반(聖水盤)을 훼손하고 성인들의 동상을 파괴하며, 심지어 1528년엔 성모 마리아 동상의

7) 칼뱅의 사촌인 루이 올리베망(Louis Olivétan, 1506-1538)이 번역한 성경.

목을 자르는 일까지 일어났고, 미사 중 강론하는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모욕하는 사건도 빈발했다(*Garrison, 1988: 154*). 이때까지만 해도 프랑스 국왕은 개신교도들에 대하여 완전히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534년 왕의 침실에까지 벽보가 붙은 이른바 “벽보 사건”(L’Affaire des Placards) 이후, 프랑스와 1세(*Hughes, 1984: 184-185*)<sup>8)</sup>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하였다.

### (1) 벽보 사건

37cm x 25cm 크기의 종이 위에 고딕체로 쓰여진 텍스트의 출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루시앙 페브르의 견해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미사와 벽보들”(1945)란 논문에서, 원저자로 뇌샤렐의 첫 번째 개신교 목사가 된 앙뜨완느 마르꾸르(Antoine Marcourt)를 지목했고, 역시 뇌샤렐의 출판업자인 베에르 드 벵글(*Garrison, 1988: 159*)<sup>9)</sup>이 인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벽보는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미사는 신성모독이다. 신부가 마치 우리의 구속자인 것 인양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미사는 신성모독이다. 둘째 성찬시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 안에 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는 성경 진리에 반대된다. 셋째 이 화체설은 악마의 교리이다. 넷째 로마 카톨릭의 성찬은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찬의 열매와 정반대인 것이다(*Garrison, 1988: 160-161*).

이 본문의 위력은 엄청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라는

8) 쾨리히의 개혁가인 불링거(1504-1575)의 평가는 훨씬 더 신랄하다. “프랑스와 1세는 불순하고 불경건하고 야망에 가득찬 사람이다. 그 동안 그러한 태도를 감춘 것은 기독교적인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다.”

9) 그는 최초의 불어성경인 올리베망 역 불어성경을 출판한 사람이기도 하다.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초석이 되는 교리에 치명타를 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1세에게 있어서 권력의 중요한 축(10)인 로마카톨릭 교회는 격분하였고, 국왕은 권력 유지를 위해 카톨릭교회의 충수답게 대대적인 반(反) 개신교 정책으로 선화하였다.

## (2) 지속적 탄압과 개신교 세력의 약화

이 사건 직후 32명이 산채로 화형을 당했고 수백 명이 옥에 갇혔다. 희생자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었지만, 당시 루터파와 재통합 논의를 하던 바울 3세의 권유 등 외교적인 문제로 인하여 국왕은 탄압을 중단했고, 이듬해인 1535년 꾸췌 칙령(Edit de Coucy)에 따라 개신교도들을 사면한다. 그러나 1538년 개신교 말살정책을 지지자인 신성로마제국의 찰스 5세와 함께 프랑스와 1세는 잔혹한 탄압을 재개하였고, 이러한 반 개신교 정책은 1547년 그의 아들인 앙리 2세가 왕위를 계승한 후에도 전혀 누그러뜨림 없이 계속되었다.

이미 1520년대 후반에 소르본느와 파리 최고법원의 이단 판결로 인해 시작된 개신교도들에 대한 박해는 이 사건 이후 가일층 심화되었다. 사이비신자(malcroyants)라고 매도된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체포되어 처형당하거나 (오트코 1998: 226)<sup>11)</sup> 옥에 갇혔고, 또한 많은 수의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국외 망명의 길을 선택하였다. 이로 인해 옥일승천하던 종교개혁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 속에 신음할 때, 스위스에 있던 칼뱅은 프랑스와 1세에게 그들을 변호하고 강력하게 호소하

10) 교황 레오 10세와 프랑스와 1세 사이에 체결한 1516년 볼로냐 조약으로 프랑스 국왕은 주교와 교구 신부들에 대한 임명권을 획득하여 프랑스 교회를 장악하게 된다

11) 1545년에만 왈도파 교인 3,000명이 추기경 프랑수와 드 뚜르농의 주장에 따라 처형되었다.

는 글을 담은 “기독교 강요”가 출판되어 나왔다(McNeil, 1990:278). 칼뱅이 위그노의 개혁운동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 III. 위그노 종교개혁의 전환: 칼빈주의화 단계 (1540-1560)

1540년대에 프랑스 종교 개혁은 ‘칼빈주의화(calvinisation)’라는 전혀 새로운 국면을 경험한다. 여기에서 칼빈주의화란 한 마디로 ‘단절의 신학’이다. 이 시기에는 이러한 단절의 신학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보급, 확산시킨 제네바 개혁교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열매를 맺게 된다. 프랑스에서 칼빈주의화는 1555년 최초의 자립교회(Eglise dressée)의 탄생과 함께 가속화되며, 그로부터 4년 후 칼빈주의적 교회의 구조의 정립은 신앙고백서와 권장규칙서로 구성된 “헌법대전”(corpus constitutionnel)의 제정과 더불어 완성된다.

#### 1. 장 칼뱅과 단절의 신학 (Théologie de rupture)

삐까르디 출신의 인문주의자인 장 칼뱅은 독학으로 신학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었다. 그는 신앙 때문에 1536년 이후 제네바와 스트라스부르 등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도, 고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을 고무시키고 그들에게 역동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알았다. 당시 제네바는 프랑스에 인접한 불어권의 자유도시로서 스위스 주들과 동맹 관계에 있었으며, 파렐과 칼뱅의 주도하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바는 박해받는 프랑스 복음주의자들을 위한 망명지와 개신교 사상을 선전하는 인쇄물 공급의 중심지로서 각광을 받았다. 실제로 20년 이상 제네바는 칼뱅의 서적들과 조언들, 그리고 칼뱅의 제자들을 은밀하게

프랑스로 수출하였다. 1541년 라틴어에서 불어로 번역된 기독교강요(L'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는 매우 신속하게 프랑스 개혁파의 교리대전(la somme dogmatique réformée)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교리문답”도 그 분야에서 권위적인 저술로 유포되었다.

새로운 신학의 신봉자로서 칼뱅은 일관된 논리체계를 갖춘 한편, 읽는 이로 하여금 행동에 옮기게끔 하는 역동성을 지닌 신학을 제시하였다. 그의 신학은 루터적 개혁의 대원칙을 대부분 수용함과 동시에 스트라스부르와 스위스의 종교개혁의 대원칙들을 포함한, 종합적 신학(Dubief et Pajol, 1996: 27)이다.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창시자인 루터의 사상이 칼뱅 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룬 것은 분명하지만, 칼뱅 신학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몇몇 원리들에 대해서 그는 루터와는 다른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거나, 루터보다는 다른 개혁가들의 사상에 더 가까운 입장을 취한다.

예를 들어 신학을 전개하는 출발점에 관하여, 루터는 신자의 믿음을 견지하지만(anthropocentrique)(Marquet, 1989: 22), 칼뱅은 오히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원하시는 자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시는 초월적 하나님으로부터(théocentrique) 그의 신학을 시작한다. 또한 성찬시 그리스도의 임재방식에 있어서 칼뱅은 공재설을 취하는 루터보다는 상징설을 따르는 쾰빙글리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는 쾰빙글리와 같이 극단적인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신자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말한다. 쾰빙글리에 더 가까워 보이는 칼뱅의 입장은 이른바 ‘성상(聖像)’에 대한 태도에서 재현되는데, 쾰빙글리와 마찬가지로 칼뱅은 철저한 성상파괴주의자(iconoclaste)이다. 그는 이러한 우상들과 미신적 의식들을 배격하며, 성경만이 신앙생활에서 유일한 권위의 담지자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회론에서도 루터와 큰 시각의 차이를 보인다. 루터가 불가견적(不可見的) 교회만이 유일하게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며 가견적(可見的) 교회에

대한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반하여, 칼뱅은 부씨의 영향을 받아서, 가건적이고 지역적인 교회의 실재를 중시하였다. 칼뱅에 의하면 가건적 교회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한 믿음을 고백하며 성찬사 가지화되는 사랑의 끈으로 연합된 형제들의 공동체이다(*Dubief et Poujol, 1996: 28*).

이러한 가건적 교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인해 칼뱅은 부패한 로마가톨릭교회와는 구분되는 대안적인 교회론인 개혁교회론의 기초를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교회의 시발점은 칼뱅에 의하면 “단절의 신학”이다. 그는 단절이 없으면 진정한 개혁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망명자이면서도 제네바 개혁의 정신적 지주였던 칼뱅은, 특히 1543-4년에 한쪽 발을 로마가톨릭 교회에 담그고 다른 발은 개혁교회에 둔 사이비 복음주의자들인 “니고데모당”을 공격하였다. 순전한 복음을 좇기 위해서는 바빌론을 떠나야 한다. 즉, 인간의 고안이나 발명품에 불과한 미사와 그외의 비성경적 종교행위들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그의 완고한 질책은 중도적 입장을 취했던 프랑스의 복음주의자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강요하였다. 이 시기에 그들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분명한 선택을 해야만 했던 데에는 프랑스 국왕의 탄압도 큰 몫을 했다. 1539년부터 반(反)이단조치를 끊임없이 강화해온 국왕의 칙령들은, 1542년 소르본느의 박사들이 이단사설과 정통주의와의 교리적 경계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완전한 체계를 갖춘다. 국왕의 칙령들은 가혹한 탄압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16세기 후반과 17세기에 자행된 프랑스 국왕의 잔인무도한 탄압정책에 비교하면 그 적용의 범위에 있어서 제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1540년부터 60년까지 이러한 반(反)이단 법령에 의해 처형된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은 모두 450명 정도였고, 이것은 같은 이유로 체포된 개신교도들의 10 퍼센트에 해당되는 숫자이다. 이것은 1572년 바돌로뮤 축제일(*La Saint-Barthélemy*)부터 단 삼 일 동안 파리 시내에서만 무려 2,000에서

3,000명의 개혁교인이 확실당한 것(Garrison, 1988: 282)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권력의 위협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세속 권력과 종교권력 모두에 의해, 무가치할 뿐 아니라 해악을 끼치는 이단자라는 규정되었다. 정통성을 상실한 불법적이며, 반기독교적인 존재로 공인된 복음주의자들이, 극심한 탄압이 계속되는 적대적 환경에서 그들의 신앙을 따르는 삶을 지속하려면, 그들의 신앙과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권위 있는 존재와 연결이 될 필요가 있었다. 프랑스 왕국 안에서 그러한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던 복음주의자들은 이제 제네바로 발길을 돌린다. 칼뱅이 주도한 종교개혁이 완성된 제네바를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정통성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을 뿐 아니라, 개혁을 지속하고 가속화할 수 있는 무기로서 개혁교회론을 습득하게 되었다.

## 2. 프랑스 개혁교회의 성립

1540년대에 이미 복음주의 공동체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었다. 이 공동체에서 복음주의자들은 주로 봉헌 모임과 기도 모임과 같은 형식으로 모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모임은 때때로 성찬이 동반되는 보다 정규적인 예배 형태의 집회로 발전하였다. 칼뱅은 이에 대해 어느정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특히 각 교인들의 영감에 따르는, 어느 정도 즉흥적인 성격의 모임들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칼뱅은 개혁주의의 두 가지 성례인 성찬과 세례의 거행에 대한 엄격한 조건들을 설정하였다. 첫째로, 공동체는 설교와 성례를 시행하는 목사가 있어야 한다. 둘째, 초대교회의 경우처럼, 목사와 더불어 신자들을 감독하고 권징을 시행하며 죄인들을 교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들이 있어야 한다.

목사와 장로가 구비된 교회의 모델은 프랑스 개혁교회의 고안물이 아니다. 이러한 교회의 내적 구조는 스트라스부르와 제네바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두 도시가 추구한 교회론은 상당 부분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그 이유는 칼뱅이 스트라스부르에 머무를 때, 당시 스트라스부르의 개혁을 주도했던 부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 이후에 제네바에서 대안적인 교회론을 연구하면서 그 모범적인 예로 스트라스부르의 교회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처음엔 1546년에 설립된 모(Meaux) 교회의 경우와 같이 공동체들이 스트라스부르의 교회 구조를 모방하여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러다가 1555년, 최초로 칼빈주의적 제네바 교회를 모범으로 한, 즉 최초의 프랑스 개혁교회가 설립되었다. 파리교회를 필두로 해서 그로부터 5년간 무려 천 개의 작은 공동체들이 제네바의 개혁교회 모델을 따라서 개혁교회로 세워졌다.

### 3. 개혁교회의 구조

개혁교회들은 각각 내부적으로 당회(consistoire)를 구성하는 장로들(anciens)과 목사를 구비하였고, 외부적으로 지역교회들을 연결하는 연결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 (1) 지역교회의 내부 구조

제네바의 개혁교회에서 목사, 장로, 교사와 구분되는 집사의 직분(오덕교 1997:77-80)은 프랑스의 개혁교회에서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비록 1559년의 권정규칙서에서 목사의 부재시 예배 기도와 성경 봉독을 할 수 있는 직분<sup>12)</sup>으로서 집사의 직분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장로와 집

12) 1559년의 권정규칙서, 제24항.

사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지역교회는 보통 다섯 명에서 열 명 사이의 장로들을 두었는데, 집사의 경우와는 달리, 장로는 지역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분이다. “심어진 공동체”(communautés plantées)의 경우 공동체의 설립자들이 장로가 되며, 그후 장로들의 투표에 의해 새로운 장로를 선출한다(Garrison, 1988:200). 장로들의 사회적 신분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한 편이지만, 일반적으로 공증인과 법정 서기 등 법률 제도의 종사자들과 상인 등 중, 소 부르주와들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Garrison, 1988:202).

장로들이 매주 1회 모이는 당회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조직이다. 목사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며, 당회원 중 한 명이 노회나 지방총회에서 그 공동체를 대표하고, 가난한 자들과 목사의 사례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고, 다른 개신교 공동체와 서신 왕래를 유지하고(Garrison, 1988:196), 하위 법원(jurisdiction inférieure)을 운영하였다. 당회가 하위법원을 운영한 것은, 가혹한 공권력의 탄압과 1560년대부터 시작된 종교전쟁 등으로 거의 무정부 상태에 빠진 사회적 상황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었고, 실제로 당회의 다른 어떤 임무에 비해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된 것이었다. 당회 법정이 해결한 사안들은 신성모독과 마술 등 종교적 영역과, 다툼, 폭행 등 교인의 품행에 대한 영역, 그리고 교회 행정과 목회자의 문제에 관한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몽또봉과 님 지역의 경우처럼 당회 법정은 교회 행정과 목회자의 문제, 그리고 교인의 품행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Garrison, 1988:198). 당회의 법정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당회는 필요한 경우, 견책과 극단적인 경우 수찬금지 조치를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목사는 무엇보다 설교가였다. 매주일 마다 목사들은 1543년 자기 시촌인 올리베땅이 번역한 불어성경을 칼뱅 자신이 개정한 제네바 성경을 텍스트

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였다. 그들 중 다수는 제네바의 목사회(Compagnie des Pasteurs)에서 직접 파송한 자들이었지만, 공동체의 숫자가 비약적으로 늘어가면서(Berthoud, 1999: 73) 목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제네바의 목사회는 1555년에서 1562년까지 88명의 목사를 프랑스로 파송하였다(Berthoud, 1999: 75). 1559년의 권징규칙서에 의하면, 목사의 임명은 최종적으로 지역교회의 당회에서 결정한 후 교인들에게 알리게 돼 있다. 그런데 목사 임명의 과정은 1571년의 규칙서에서 바뀌는데, 지방총회가 목사 후보를 검증한 후 파송하면, 해당 지역교회의 당회가 지명하도록 규정하였다. 목사의 출신성분을 살펴보면,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해야 하는 사역의 특성 때문에, 고등 교육의 혜택을 누리는 상류계층 출신들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킹돈의 연구(Kingdon, 1962)에 의하면, 1555년에서 1563년까지 제네바에서 프랑스로 파송된 목사들 중 33 퍼센트가 귀족 출신이거나 귀족과 인척관계였다.

## (2) 연결 구조

상술한 지역교회의 구조는 스트라스부르와 제네바의 그것에 비해 독창적인 점이 전혀 없는 것이지만, 동시에 프랑스의 개혁교회들은 초기부터 아주 독창적인 구조를 겸비하였다. 그것은 개별 교회들을 연결하는 연결 구조였다. 서로 서로 독립적이고 지위에 있어서 평등한 프랑스의 개혁교회들을 연결하는 구조는 세 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노회(colloques)와 지방총회(synodes provinciaux), 그리고 전국총회(synode national)이었다.

한 지역(pays)에는 보통 열에서 열 다섯 교회가 속해 있다. 노회는, 그 지역에 속한 교회들이 각각 목사와 한 명의 장로를 파송하여 구성되며, 일년에 두 차례 열린다. 지역교회들을 감독하는 것이 그 중요한 사명이다. 노회의 권한은 전국총회에 의하여 제한되고, 지방총회의 결정에 복종하여야 한

다(오덕교, 1998: 230). 지방총회는 매년 한 차례 열리며, 해당 지방(province)에 속한 노회들이 그들의 대표자로서 파송한 목사와 두 명의 장로에 의해 구성된다. 또한 각 지방총회는 두 명의 장로와 두 명의 목사들을 전국총회로 파송한다. 전국총회는 규칙서에 의하면 매년 한 차례 열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당시 프랑스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은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1583년 비트레 총회가 열린 후, 몽또방 총회가 열린 1594년까지 총회가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당회, 노회, 지방총회 그리고 전국총회는 그 기능만 보면 서로 비슷하다. 최하위 조직인 당회의 임무와 마찬가지로, 이들 상위 조직들은 개혁교회와 일반 사회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다. 이러한 다단계로 구성된 연결 구조는 로마카톨릭교회의 위계질서와는 외관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다. 후자의 경우, 위계질서를 따라 위로 올라갈수록 권한이 강화되어 최상위에 위치한 교황의 보좌가 권력의 정점에 해당하지만, 개혁교회의 연결구조의 경우, 그 반대로 실질적 권한은 최하위구조인 지역교회와 당회에 있다(Garrison, 1988: 191). 본질적으로 권한이 동등한 지역교회들이 노회와 지방 총회와 같은 연결구조에서 이상적인 협력 사역을 이루려면, 참가자들이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입장이나 자존심 등을 접어버리고 상대를 높일 수 있는 올바른 협동훈련이 된 자들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 남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동등한 상태에서 협력하는 사역에 익숙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그런데 이 시기의 프랑스 개혁교회들간의 협력은 성공적이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 킹돈은 제네바의 목사회에서 경험했던 학급 시스템에 두었다. 학급에서 서로 존중하며 상호 훈련과 점검을 받던 경험들이, 프랑스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Berthoud, 1999: 80-81).

### (3) 헌법대전(Corpus constitutionnel)

1559년 파리에서 열린 최초의 전국총회는 칼뱅의 제자인 앙드레 드 상디외가 작성한 신앙고백과 권징규칙서를 채택하였다. 이것들은 각각 칼뱅의 “36개조 신조”와 “기독교 강요”, 그리고 제네바 교회와 스트라스부르 교회의 권징 규범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오목교 1997: 95). 개혁교회들은 “우리는 믿는다”(nous croyons) 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신앙고백을 채택하면서 단일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것이 공교회에 대한 공통된 믿음을 고백했다는 점에서는 로마카톨릭교회의 그것과 유사하지만, 여기서 공교회에 대한 공통된 믿음이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공교회의 수직적 위계질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신앙고백의 구조는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서 처럼, ‘하나님과 그의 계시 - 인간과 그의 패역 - 예수의 공로 - 구원 - 교회 - 성례 - 세속권력과 그의 의무’와 같은 순서를 따르고 있다. 모두 40개 조항으로 구성된 신앙고백은 칼뱅의 종교개혁사상을 재천명한다. 인간의 전적 타락(9조)과 하나님ی 값없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통한 구원(20, 21, 22조), 오직 성경만이 믿음의 원천임(4, 5조)을 선포한다. 특히 칼뱅 신학을 대표하는 교리로 알려지는 예정 교리가 구속교리와 이신득의(以信得義) 교리보다 앞서 진술된 것은 이 신앙고백이 얼마나 칼뱅의 사상에 충실하고자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신앙고백은 또한 성인의 중보, 연옥과 공로 사상, 교린 사상 등 로마카톨릭 교리의 오류들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다.

4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권징규칙서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교회 내부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었다. 이것은 무엇보다 당회, 노회, 지방총회, 전국총회의 구조를 갖는 교회 회의 제도를 규정하였다. 권징규칙서는 또한 목사의 사례에 대한 규정, 온전한 권징의 실시, 참회자들의 사적인 고백의 비밀 보장 등, 목사와 신자들을 위한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행동기준을

명시하였다. 이 권징규칙서는 불변한 것이 아니었고, 상황에 따라서 전국총회의 결정에 의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1559년의 40개 조항의 규칙서는 1571년 라 로셀 총회에서 본문의 상당 부분이 개정되었을 뿐 아니라, 조항 수도 155개 조항으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Dubief et Pajol, 1996: 33).

#### 4. 프랑스 개혁신회의의 팽창

칼빈주의적 교회 조직이 완성됨과 동시에 이 시기의 프랑스 개혁신회는, 1559년 에꾸앙 칙령(Edit d'Ecouen)으로 촉발된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경험하였다. 1555년 겨우 2,000 명에 불과했던 개혁신교인의 수는, 1562년 전체 인구의 11 퍼센트에 해당하는, 2,000,000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개혁신교회들은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분포됐다. 귀엔, 가스끄뉴, 베른, 랑그독, 쉐넬, 비바레, 도피네 등 옥씨땅(occitan) 지역은 개혁신교회들이 역동성을 보이는 곳이었다. 그 외에도 프랑스 서부지역에서 오니, 라 생똥쥬, 브와뚜 남쪽 지역, 르와르 지역과 노르망디가 유명했으며, 남불(南佛)지방에서는 특히 소(小)도시들에서 칼빈주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개혁신교인들의 사회학적 구성을 살펴보면, 첫째 여성과 청년의 비중이 크다. 둘째, 16세기 초엽의 프랑스 복음주의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와 큰 부락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사회적 신분을 보면, 사제들과 법관, 변호사, 집달리, 공증인 등 법률 종사자들, 그리고 장인들과 상인들이 대부분이었다. 당시의 개혁신교인들은 계급적으로 중, 소 부르주아가 다수를 차지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 중에 또한 지성계, 문학, 예술 분야의 엘리트들이 많았다. 시인으로 유명한 기욤 드 살뤼스뜨

뒤 바르따(1544-1590)와 아그랍바 도비네(1552-1630), 조각가로는 장 구종(1510-1566)과 리지에 리시에(1500-1567), 도예가인 베르나르 빨리씨(1510-1590), 음악가인 플로드 구디멜(1520-1572) 등이 그러하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것은 상류층의 개종이다. 고위 법관들과 거상(巨商)들이 종교 개혁 대열에 참여했고, 특히 귀족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다수의 신사(gentilhommes)계층이 개혁교인이 되었다. 이러한 명망가와 귀족들은 개혁교회 내에서 “자연적인 지도자”(Garrison, 1988: 33)가 되었다.

이러한 개혁파 그룹의 성장과 귀족화는 개혁교회의 운명을 변화시켰다. 개혁교회는 그간의 불법성에서 탈피하여 합법성을 얻고자 할 뿐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정치세력화 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어느 정도 세속적 권력을 구비하게 된 개혁교회는 법률적 합법성을 취득하는 것을 바라는 것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개신교의 프랑스 국교화를 열망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왕과 가까운 최고위층의 개혁파 귀족들은 정치적 개입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1559년 개신교의 무자비한 탄압자였던 앙리 2세가 사망했을 때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도래한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당시 왕위를 계승한 프랑스와 2세는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왕권을 유지하며 통치할 수 없었고, 대신 그 권력의 공백을 왕비인 마리 스튜아르(Marie Stuart)의 삼촌들인 로렌(Lorraine)의 기즈인들(les Guises)이 점령하고 나서 그 기회는 사라졌다. 기즈 가문은 발루와 왕조에 한번도 충성을 보이지 않은 이탈리아 출신의 귀족의 자손들로서(McNeil, 1990: 282) 열성적인 로마 카톨릭 집안이었고, 로렌의 추기경이며 랭스(Reims)의 대주교로서 프랑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장인 샤를(Charles)이 이 가문을 대표한다. 그들은 개혁교회에 대하여 죽은 앙리 2세 못지 않은 잔혹한 탄압 정책을 추진했다. 그들은 심지어 1559년에 파리 최고법원의 고문이었던 안느 뒤 부르를 화형에 처하기까지 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 일으켜, 기즈문에 필적할만한 부르봉(Bourbon)가의 나바르 왕인 앙뜨완 드 부르봉(Antoine de Bourbon)과 그의 형제 루이 드 콩데(Louis de Condé)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 당파가 조직되었다. 이 개신교 당파는, 무엇보다 왕을 악한 영향력에서 구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즈인들의 체포를 기도한 대담한 쿠데타 계획을 수립하였다.<sup>13)</sup> 그러나 프랑스 개신교도들이 시도한 최초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사건인, 1560년 앙브와즈의 음모(cojuration d'Amboise)는 실패로 돌아갔고, 기즈인들은 잔혹한 탄압으로 개신교인들에게 보복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시대의 흐름은 뒤바뀌어, 이때부터 “위그노”(Huguenots)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한 칼빈주의자들에게도 양지가 찾아왔다. 왕의 모친인 까뜨린 드 메디치(Catherine de Médicis)는 국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기즈인들을 축출하였고, 프랑스와 2세가 사망한 후 섭정 여왕에 등극하였다. 개혁교회의 눈부신 성장에 감명을 받은 까뜨린 드 메디치는 총리대신인 미셸 드 로베탈(Michel de L'Hopital)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로마카톨릭교도와 개혁교도들간의 화해를 추진한다. 그녀는 순전히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1561년 뵘와씨 대회에서 양측이 화해하고 종교적 단일성이 달성되길 기대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562년 그녀는 1월 칙령(Édit de Janvier)에 서명하였다. 이 1월 칙령은 개신교를 인정하는 최초의 프랑스 법령으로, 이에 따라 개혁교인들은 도시 밖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게 되었다.

13) 오덕교는 그의 “종교개혁사”에서 위그노의 정치사상은 칼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칼뱅이 “군주가 법을 무시하고 폭정을 행할 때, 왕의 아래서 일하는 행정 관료들이 왕에게 항거할 수 있다”고 가르친 점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불복종의 가능성은 칼뱅의 사상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 IV. 결론

프랑스의 종교개혁사는 다른 어떤 나라의 그것보다도 드라마틱하다. 그것은 맥닐이 말한 것처럼 “이 역사를 ‘순교자 열전’으로 바꾸는 것은 쉬운 일(McNeill, 1954: 277)”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위그노 운동의 태동에서부터 전개과정 전체가, 격동하는 서양의 역사와 맞물려서 숨가쁘게 진행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그노 운동의 사상적 토대는 상당히 일찍 형성되었지만, 실제적인 개혁 운동이 시작된 것은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16세기 초엽 르페브르와 같은 대 사상가의 존재와 인쇄술의 공헌으로 종교개혁 사상은 루터의 독일과 거의 같은 때에 보급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종교개혁운동이 시작된 것은 독일이나 스위스에 비하여 20년이나 늦다.

여기에 대해서 보베로는 초기의 복음주의자들이 무엇보다도 국왕의 개종에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에(Baubérot, 1987: 29) 개혁운동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국왕이 개종하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국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개신교회의 설립조차 뒤로 미루었다는 것이다. 그밖의 요인들에 대해서 보베로는,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프랑스에 민족주의적이거나 반(反)로마적인 세력이 없었다는 것, 벽보 사건 이후에 일반 백성들이 프로테스탄트는 사회 질서와 윤리를 어지럽히는 문제아들로 인식하게 됐다는 거, 공권력의 조직적인 탄압 정책으로 개신교 세력이 약화됐다는 것 등을 들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프랑스의 복음주의자들이 결정적으로 행동할 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타협적인 자세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히그만 같은 사학자들은 그들의 비분리적(non schismatique) 성향을 높이 평가했지만(Baubérot, 1987: 28), 당시 로마 카톨릭이 안으로부터 그리고 위로부터 변할 수 있었을지는 회의적이다. 오히려 그들이 로마 카톨릭의 부동성

(immobilisme)을 과소평가 했다는 뒤비에프와 뿌졸의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게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들이 그와 같은 호된 실패와 핍박을 경험하기 전에 칼뱅이 말하는 것처럼 “단절의 신학”을 선택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독일의 개신교인들이 로마 카톨릭을 대상화하고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할 수 있었던 것을 프랑스의 초기 복음주의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들과 로마 카톨릭 시스템, 로마교회의 동반자로서의 오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로마 교황청과 적대감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을 나와는 다른 대상으로, 또는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 로마 교회와의 관계에서 머뭇거리던 복음주의자들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분명한 선택을 하도록 강요한 것은 공권력의 탄압이었다. 그 탄압 앞에서 다수는 과감하게 로마교회와의 관계를 단절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국외 망명의 길을 떠났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미사에 불참하고 성상을 파괴하거나 복음 설교를 하는 등 로마 교회에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해에 굴복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개신교 신앙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목숨을 구하기 위해 로마 카톨릭의 의식에 참여했다.

르페브르의 개혁사상의 보급에서 시작해서 프랑스와 1세의 박해 정책으로 끝나는 복음주의적 종교개혁운동의 시기(1520-1540)는 사실상 절반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공권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 맥이 완전히 끊긴 것이 아니므로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지만, 종교개혁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동인(動因)과 그리고 종교개혁을 구체화할 수 있는 내부적 구조가 구비되지 않은 점은 실패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복음주의자들의 절반의 개혁(Berthoud, 1999: 39)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할 때, 그들의 내면적 종교개혁사상은 옳았지만, 그들이 선택한 외면적 행동양

식이 옳지 않았다고 단순화시킬 수는 없다. 그들은 외면적인 행동 양식에 결함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종교개혁사상도 충분히 성숙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벽보 사건이 보여주듯, 그들은 로마 카톨릭의 오류를 정확하게 색출해낼 수는 있었지만, 그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들에겐 각자의 사상을 온전하게 정립하게 하고 서로를 공동체적 연대감으로 긴밀히 연결하게 할 수 있는 보다 바른 신학적 체계로 필요했다.

또한 그들은 갈수록 혹독해지는 외부세력의 핍박에 대항하여 공동체적으로 맞서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공동체적 신앙생활의 양식이 필요했다. 칼뱅의 신학적 체계와 교회 구조는 이 두 종류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그레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시민 정부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종교, 정치, 사회 경제적 활동에 관련된 영역에서 위그노들이 취할 자세를 설명하였다고 말했다(Gray, 1981: 33).

그러나 위그노의 개혁운동에 새로운 신앙생활의 형식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칼뱅의 도움은 의심할 바 없이 효과적이었다. 이미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통해 검증된 교회의 내부 구조와 예배 형식, 그리고 권징 시스템은 핍박 속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신앙공동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양질의 목회자를 배출하고 목회자와 평신도의 영적 유익과 윤리적 생활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 참고문헌

- Beaubérot, Jean (1987), *Histoire du protestantisme*, Paris: PUF.  
 Berthoud, Jean-Marc (1999), *Calvin et la France: Genève et le déploiement de la réforme du XVIe siècle*, Lausanne: L'Age d'Homme.

- Dubief, Henri et Poujol, Jacques (1996), *La France protestante: Histoire et lieux de mémoire*, Paris: Les Editions de Paris.
- Garrison, Janine (1988), *Les Protestants aux XVIIe siècle*, Paris: Fayard.
- Gray, Janet Glenn (1981), *The French Hugnots: Anatomy of Courage*, Grand Rapids, Michigan: Bake Book House Company.
- Häseler, Jens et McKena, Antony (1999), *La vie intellectuelle aux Refuges protestants*, Paris: Honoré Champion.
- Hughes, Philip Edgcumbe (1984), *Lefèvre, Pioneer of Ecclesiastical Renewal in France*, Grand Rapids, MI: Eerdmans.
- Kingdon, Rober (1962), *Registre de la Compagnie des pasteurs de Genève au temps de Calvin*, Genève.
- Mehl, Roger (1982), *Le protestantisme français dans la société actuelle*, Genève: Labor et Fides.
- Marquet, Claudette (1989), *Le protestantisme*, Paris: Jacques Grancher.
- McNeill, John T. (1954),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양낙홍 역 (1990),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Richard, Michel-Edmond (1994), *La vie des protestants français de l'Edit de Nantes à la Révolution (1598-1789)*, Paris: Les Editions de Paris.
- Richardot, Jean-Pierre (1980), *Le Peuple protestant français aujourd'hui*, Languedoc: Robert Laffont.
- 오덕교 (1997), 『장로교회사』,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 \_\_\_\_\_ (1998), 『종교개혁사』, 수원: 합동신학교출판부.
- \_\_\_\_\_ (1994), 『청교도와 교회개혁』, 수원: 합동신학교출판부.

**ABSTRACT**

**The Reformation of the French Hugnots in the First  
Half of the Sixteenth Century and their Thoughts**

Ki-Ho Shin

In this paper I surveyed the French Reformation in the first half of the sixteenth century when John Calvin played an important role. It can be divided into two phases. The first is the period for evangelization which was characterized by the diffusion of the ideas of reformers such as Lefèvres and Luther. Some experiments for the Reformation were also attempted in a moderate and progressive way, but, they ended in failure, because of the systematical suppression of the royal authority following "L'Affaire de placard". The second phase can be called the period of Calvinization which was characterized by a radical movement for the Reformation. This period was dominated by the theology of separation which was willing to separate completely the French protestants from the Roman Church. It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French Reformed Church with a specific internal and external structure.

**Key words:** Hugnots, Lefèvres, Calvin, French Reformed Church